

양계 최고 경영자 연구과정

— 지난 11월12일~13일 실시 —



◀ 김명환 소장

* 약력

- 62년 서울대학 농과대학 축산학과출
- 66년 대한사료공업주식회사
- 68년 천호부회장
- 76년 채란계업 시작
- 81년 마니육종
- 86년 한국양계연구소

양계업계에도 민간인에 의한 연구소가 운영될 만큼 눈부신 발전이 이룩되고 있다. 이는 업계 전체에 상당한 수준 향상의 의미를 말해주는 징표이다. 현재 그 일을 맡고 있는 김영환소장은 서울대 농대 축산과를 졸업한 후 대한사료를 거쳐 천호부 회장 전무, 마니육종 사장을 역임하고 현재 채란계농장을 경영하면서 실무에서 체험한 많은 자료를 응용해 농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문제점을 업계에 널리 알리는 양계연구가이다.

지난 11월12일(수)부터 13일까지 1박2일로 실시됐던 한국양계연구소 주최 “양계최고경영자 연구과정”을 통하여 실제 사양가들에게 도움이 될 내용이 있어 그 내용을 취재해 보았다.

당초 20명만을 신청받아 행사를 치를 예정이었으나 신청자가 많아 참가인원을 늘려 분주한 행사를 치렀다고 김소장은 말하고 있다.

이번에 개최된 연구과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 과목 : 양계학서론 “필수양계용어 20”

가금영양, 사양관리, 건축시설에 기초가 되는 내용을 설명하였다. 양계성과분석에 기초가 되는 헨데이와 헨하우스, 산란수의 계산법, 사료의 칼로리와 소단백질 계산법, 환기량의 계산법, 계사지붕의 단열수치 계산법, 양계수익평가를 위한 난사비의 계산법, 고밀도 사육의 방법 등 20여가지 항목에 대하여 설명했다.

제 2 과목 : 사양관리를 통한 생산원가절감

현재 한국 채란양계에서 낭비요소가 무엇인가를 이론과 현실을 부합시켜가며 과학적으로 분석 검토 하였다. 전업양계가들에게 가장 감명을 준 120분간의 열강이 있었다. 계란생산원가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사료낭비를 줄이는 일이 생산원가 절감의 목표가 되어야 하며 계사온도와 사료섭취량과의 관계, 현재 급수기의 문제점, 현 육성시스템의 문제점과 해결책, 육성중 체중조절의 필요성, 급이관리의 개선점, 정밀사양기법의 적용

을 통한 원가절감 방안이 검토되었다.

제 3 과목 : 강제환우의 심층분석

강제환우시 질식 때문에 생기는 파란발생과 저칼시움증(Hypocalcicaemia)을 방지하기 위하여 질식 첫날 수당 15mg의 석회석을 급여하도록 하는 내용은 양계가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며, 그 외에 강제환우와 관련된 각종 연구보고의 인용을 통하여 환우시 점등과 점중, 체중감소, 목표의 설정, 환우의 사료급여기법, 수익성 분석을 제시한 것은 매우 인상 깊었다.

제 4 과목 : 입추도태계획표의 작성

양계경영에서 초생추의 입추도태를 합리적으로 계획한다는 것은 시설이용 면이나 수익의 극대화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난가의 계절적 패턴을 분석하고, 수익성 극대화를 위한 도태입추시기를 난가패턴에 대입시켰으며 이를 과학적으로 프로그램화한 것이 인상 깊었다.

제 5 과목 : 채란계농장의 계획과 시설체계

현재 우리나라 채란시설 육성시설을 1인당 관리가능수수, 수당 연간노임이란 관점에서 평가하고 앞으로 국제 경쟁력있는 원가절감을 위하여, 또한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추구하여야 할 채란시설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 과목에서는 배터리 육추육성체계와 채란계의 고밀도사육, 지붕단열의 향상과 환기시설의 채택을 크게 강조하고 있으며, 호퍼식급여시설, 니플급수장치, 계분제거와 계분건조장의 연결체계가 원가절감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제 6 과목 : 산란계 육성프로그램의 개선

닭의 사양관리를 (1)사양프로그램의 작성, (2)위생관리 프로그램의 작성, (3)일일관리조절의 3분야로 분류하고, 좋은 채란계로 육성하기 위한 사양관리 프로그램을 시설, 사료영양, 사육밀도, 공기와 점등에 입각하여 설정하고, 위생관리 프

로그램은 지역과 계절에 맞는 점중 스케줄의 작성, 휘드빈 관리, 환기시설, 환경관리에 입각하여 제시하였으며, 제 3편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따라 닭을 관리할지라도 예고 없이 변하는 환경조건에 적응하는 임기응변관리가 필요함을 설명했다.

특히 휘드빈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그의 위생관리의 중요성을 환기시킨 것은 대단히 중요했다.

제 7 과목 : 산란기간관리의 요점

초산후 피크까지, 산란후기까지의 생리적 변화와 급여관리를 설명하고, 계군관찰요령, 제한급여, 점등관리, 환기체계, 계란품질 향상관리 등을 내용으로 120분에 걸쳐 흥미있게 진행되었다.

제 8 과목 : 계분건조의 실제

계분은 치위 없애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계분제품의 생산이라는 관점으로 바뀌어야 함을 역설하면서 계분건조, 발효의 과정을 설명했다.

제 9 과목 : 양계장의 기록과 평가

우리 농장의 생산수준을 알기 위하여, 개선목표를 찾기 위하여, 양계업의 과학화를 위하여, 반드시 기록을 하고 분석평가하는 체계를 농장에 도입하지 않으면 안된다. 본과목에서는 육성기간과 산란기간으로 나누어 항목별 능력 분석체계를 설정, 제시하고 있으며 간단한 수익성 분석방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컴퓨터에 의한 분석이 농장에 더욱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한국양계연구소가 역할을 할 계획임을 비쳤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 경주, 광주에 이어 네번째이며 채란양계가와 관련산업(사료, 약품업체) 영업담당자들에게 예상 밖의 좋은 반응을 얻어 제 5회 세미나는 87년 3월 18일과 19일 서울 한강호텔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다. ♣

닭먼저 계란먼저 순서없이 영양만점

— 표어모집 우수상 —